

◇ 特別論文 ◇      나의 人生觀

人間哲學 序想 【3】    人間的인 哲學

朴致祐

새로운 르네상스는 새로운 人生觀을 要求하고있다. 새로운 人生觀은 그러나 새로운 人間觀을 前提해서만 可能한 것이다. 人間이란 무엇인가를 明確히 알기 前에는 人生의 目的을, 意味를 捕捉할 수 없겠기 때문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나는 불비하나마 나의 가진바 人生觀을 提出하는바다.

우선 미리 明白히 해두어야 할 것은 이 소론에 있어 서의 나의 態度다. 一貫으로 말하면 나는 나의 人間把握을 徹頭徹尾 人間的 立場에서 遂行하려는 者다. 나의 人間觀은 그러므로 一種의 人間的인 哲學이다. 나의 人間觀은 人間은(다른 存在가 아니라 人間을)人間的 立場에서把握함을 內容삼는 一種의 人間的인 哲學이려고한다. 나는 이리케 함으로써 만 참으로 人間다운 人間을 發見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 自身人間다운 人間의 立場에 섬으로써 對象인 人間을 참으로 人間다운 人間으로서 把握함에 힘써보려는 者다. 말하자면 나의 人間觀은 人間에 對한 人間的인 哲學이다. 人間的인 哲學이 對象을 人間에 둘 때에 생겨지는 哲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人間」에 對한 「學」이 아니라 單純히 人間에 對한 一種의 要求, 呼訴, 主張그것이다. 나의 人生觀은 그러므로 人類에 對한 一種의 「이즘」이며 「觀」으로서만 成立된다.

나는 以上과 같이 人間을 人間的으로 把握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方法을 取한다. 卽 人間을 物體로서가 아니라 生命으로서-空間性에 있어 서가 아니라, 時間的에 있어서-平面性에 있어 서가 아니라 深遠性에 있어서-因果性에 있어 서가 아니라 運命性에 있어서 把握한다. 靜的으로가 아니라, 動的으로-學的으로가 아니라 生活的으로-對象的으로가 아니라 主體的으로 把握하려는 것이다. 이리케 함으로써만 나는 人間다운 人間을 把握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서만 우리는 人間이란 무엇인가를 참으로 알 수 있으며, 따라서 人間의 危機란 도대체 어떤 狀態를 말함인가를 明確히 把握할 수 있을 것이며 同時에 危機一般의 全面的인 克服을 可能케할 唯一의 血路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믿음으로써다.

그러나 나의 人間觀은 한 개의 「觀」이며 「이즘」으로써만 提出되었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나의 것」으로서 언제나 個性的이며 性格的임을 免할수 없으리라. 同時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것」일수도 있으리 라고 믿는다.

何故 오하면 人間다운 人間을 찾으려하는 나의 意圖는 곧 時代의 要求 그것이 겹기 때문이다. 「想戀」 「이즘」은 언제나 根源的으로는 그것은 提唱한 사람 그 自身の 것임으로써, 個性的이고 性格的인것이나 그러나 모-든 個性的이고 性格的인 思想이 例外없이 不可避的으로 個人的이며 主觀的인 思想이 되고 말아야할 아모러한 必然的인 理由도 없기 때문이다. 個性的, 性格的이란 것은 個人的, 主觀的이란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問題는 元來 個性的이며 性格的이어야될 思想인 同時에 時代의 客觀的 物質을 가졌는가 말었는가에 달린 것이다. 時代的인 「이즘」은 그러므로 恒常 「我」인 동시에 「汝」인 「吾」의 것이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以下 나의 企圖하는 人間觀도 亦是 人間把握에 있어 서의 時代的인 要求의 反映에 지나지 않는 것이였든 以上나는 다만 「나」라는 個性과 性格을 通하여 時代의 要求를 體現시킴을 圖謀함에 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나」는 複數的인 單數다.